

## 광야생활에서의 불신앙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 -복음으로 여는 민수기-

민수기 14:1-10, 요한복음 3:14-16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 과학, 철학, 지식,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237, 세계 살릴 성경적 진도운동의 주역이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생활 40 년 동안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해 주셨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40 년이라는 세월이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율법, 십계명, 제사제도, 절기제도, 성막제도, 안식일, 성일, 대속죄일 등 많은 것을 주셨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 여러분도 이러한 언약 속에 있는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세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 ‘너희는 너희 선지 백성이 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 지역,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살리라는 것이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민수기에서는 모두 원망, 불평한다. 우리도 쉽게 그럴 수 있다. ‘내 직장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체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질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지 행복한다. 그것이 절대목표는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불만, 불평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인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강단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이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 민수기라고 한 이유는 민수기 안에는 숫자를 계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민수기에는 20 세 이상 남성들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기록되

어 있다. 2 장 32 절에서는 출애굽한 인구, 26 장 51 절에서는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인구를 계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였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세상이 비록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복음, 완전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 1. 첫 번째로, 민수기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과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0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다. 민수기 14 장 1 절에서 4 절 말씀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지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러한 원망하는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복음적인 체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결론내고 오늘부터 응답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2)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지자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다. 민수기 20 장 2 절에서 5 절 말씀을 보겠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피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드실 훈련장소, 가장 좋은 곳이었다. 만약 애굽에만 있었다면 마귀, 사탄, 세상적인 더럽고 추악한 체질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광야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든 그 현장이 가장 축복된 환경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영안이 열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대적하는 것이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적이고, 포로, 노예, 속국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음적인 자유인이 아닌 것이다. 지극히 육신적이었다. 이 모습이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리고 믿을 줄 알아야 한다.

(3) 또한 험한 길 때문에 원망 하였다. 즉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동안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였다. 민수기 21 장 4 절에서 6 절 말씀을 보겠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 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을 하였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4) 네 번째로, 민수기에는 특이하게도 22 장부터 24 장 사이에 발람 선지자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하여 긴 지면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발람의 잘못은 신약성경을 볼 때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2 장 15 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라고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악한 불의의 삯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운 것이다. 요한계시록 2 장 14 절을 보면 발람의 불신앙적

인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는다.

이 뿐만 아니라 12 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하였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분을 절제하여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신앙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 24, 교회 24, 현장 24 에 도전해야 한다. 즉 24 시간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복음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겠다.

## 2. 두 번째로는 민수기에 기록된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에 대하여 대표적인 내용만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첫 번째로, 렘넬트 출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전민음, 완전복음을 보여 주었다. 민수기 14 장 6 절에서 10 절이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가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그 현장은 심히 아름다운 현장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밭을 축복의 밭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면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복음적인 내용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60 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민수기 2 장 32 절에서 33 절을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을 제외하고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26 장 51 절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인원은 “육십만 천칠백 삼십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인원은 1820 명이 감소된 인원이다. 불신앙하여 매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줄을 믿는다. 하지만 약 430 년 전에 애굽으로 간 70 명이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창세기 1 장 28 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 장 28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 위에 있을 줄 믿는다.

(3) 세 번째로 나실인의 법을 주셨다. 이 나실인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레위인과 아론과 그 후손들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실인의 법에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새로운 법이 있었다. 이 나실인은 말씀과 복음이 체질화된 완전복음의 전도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수기 6 장 1 절에서 6 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즉 나실인이란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이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 서원한 전도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절대제자가 되어야 한다.

(4) 네 번째의 복음적인 내용으로, 민수기서는 민수기 21 장에 기록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 민수기 21 장 8 절에서 9 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위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 장 14 절에서 16 절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왜 장대에 달린 것이 뱀이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다. 회개제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비전은 237 나라의 제자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예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약 나 24, 교회 24, 현장 24 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70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현장을 놓고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투덜거렸던 것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내용을 237, 치유, 서밋의 관점으로 재해석, 재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 비록 광야같은 세상이지만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를 통하여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 그 현장에서 광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후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절대 계획과 언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실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